

Case Study on Career Decision Process of Music Therapy Graduate Students without Music Training

Park, Hy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experiences of non-music majors to changing their majors into music therapy and to provide the preliminary study for deriving a grounded theory. For that,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targeting 5 students who did not major in music in their undergraduate courses selected from the graduat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music therapy at the colleges located in Seoul. Data was analyzed for the study by applying the modified grounded theory.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they selected the course of music therapy career as they were motivated by the realistic demand for future employment, career potentials and other realistic causes. These factors caused them to study the surrounding situations and conduct the detaile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music therapy. These factors were also dependent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ternal elements and music background. These experiences were connected to the self-integration and pursuit of growth by newly setting their relation to the 'Music Child'. In addition, the demand of being the meaningful existence in relationship also affected them to more specify their aspirations in the progress of career selection on a continual basi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provides the actual information on them.

Keywords : Music therapy, Non-music majors, Career decision process, Music child, Grounded theory

* Doctoral Student, Dep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연구

박혜영*

본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 중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하여 근거이론 도출을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은 삶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와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현실적인 자극을 받아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유발되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과 음악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야기하였고, 개인적 특성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음악적 배경이 상호작용 하였다. 그 경험은 자신의 본능과 잠재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음악아(Music Child)'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자기(self) 통합과 성장의 추구로 이어졌다. 또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포부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학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음악치료에 입문한 비음악 전공자들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핵심어 : 음악치료, 비음악 전공자, 진로선택과정, 음악아, 근거이론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박사과정(legendphy@hanmail.net)

I. 서 론

최근 한국 학계는 간학문적인 접근 방법과 학문의 통합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분과학문 중심의 단편적 지식 전달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학문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과과정 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치료는 음악과 치료라는 다른 두 영역이 결합된 응용학문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학문으로서의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Brucia, 1998).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철학, 과학, 예술, 심리학,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인간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음악에 반응하는 선천적 음악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생득적 감수성은 ‘음악아(Music Child)’라 일컬어진다(Robarts, 1993). 여기서 ‘음악아’는 음악적 경험에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참여를 원하고, 음악을 기억하며, 음악적 표현을 즐기는 내부 자아의 일부로서 음악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개념이다(Nordoff & Robbins, 2007). ‘음악아’의 활발한 활동은 인간의 인지적, 표현적 능력의 발전을 수반하며(Robbins & Robbins, 1991) 자기발견, 자기표현, 자기실현을 촉진한다(Robbins, 2005). 음악치료에서 중요한 치료목표로 다루어지는 자기실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뿐 만 아니라 치료사 스스로도 ‘음악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김동민, 2008).

‘음악아’의 재발견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악치료의 치료적 의미와 효과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면서 음악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Chong & Kim, 2010). 더불어 내담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의 하나로 음악치료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Davis 외, 2002).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역량 규명 연구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왔다(Alley, 1978). 음악치료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적 경계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중심으로 음악치료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들이 규명되고 있다(Chong, 2007).

전문성을 갖춘 음악치료사를 배출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에 음악치료학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의 이론적·임상적 적용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지만, 음악치료사가 한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은 광범위하며, 또한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닌 경우가 많다(박민경, 2010). 특히 음악치료에서의 음악 기술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학과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남궁지숙, 2005).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역량이 기초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음악전공자들이 학

부전공을 변경하여 음악치료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과 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 및 가정적 혹은 사회적 배경 뿐 만 아니라, 해당 학과에 대한 전문적으로서의 잠재성이나 그에 수반하는 사회적 성공 여부와도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Callanan & Greenhaus, 1992).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개인과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진 의사결정과정인 진로선택에 있어서 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진로 발달 이론가들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발달단계별 진로선택과정 자체를 중요시 하는 반면(Ginzberg, 1972; Super, 1975), 개인의 내적 동기나 심리적 변인에 의한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Gati & Asher, 2001; Harren, 1979; Tiedeman & O'Hara, 1963). 특히 국내에서는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현재 결정 수준 및 유형을 측정하고,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유지선, 2004;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1; 장선철, 2004).

국내의 음악치료 연구에서는 주로 음악이 갖는 치료적 의미와 음악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음악치료 학문으로부터 얻는 치료사 개인의 경험 및 의미, 치료사들의 욕구 이해와 같은 질적, 미시적 연구에는 소홀해 왔다(조경림, 2010). 진로선택과정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복잡성을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심층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하정, 2007). 특히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대처하는 방식과 과정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기에 적합하며, 각 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하기에 유용하다(Schreiber & Stern,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도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을 사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치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음악치료학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비음악 전공자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 하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구조와 맥락을 설명하는 실체이론 도출을 위한 예비 연구로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개방코딩과 축코

딩을 활용한 변형된(modified)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E대학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표집은 준거 지향적 방법을 사용하여, 진로 선택 과정에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학 연차, 재학 학교, 음악적 경험의 정도 등을 제한하였다. 선정 기준은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며, 선정 과정은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개인에게 연구자가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세부 목적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결혼 여부는 미혼 4명, 기혼 1명이다. 평균 나이는 만 29세 이고 (최소 25세, 최대 34), 학력은 석사 및 박사과정 중 이었다(〈표 1〉 참조). 자료 수집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구분	연구참여자	연령	학부전공	학력
01	A	28	기독교학	석사과정
02	B	28	역사학	석사과정
03	C	34	생물학	박사과정
04	D	25	기독교학	석사과정
05	E	31	일반사회교육학	석사과정

2. 연구 시행

연구 참여자의 음악치료 진로선택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를 위해 첫째, 연구 대상자들이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음악치료진로 선택의 과정과 의미 등을 개별 접촉을 통한 심층면담으로 알아보았다.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주제 분석에 효과적이었다. 둘째, 면접 시간은 60분 내외였으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구체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 2명과 추가 면접을 시행하여 총 7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면담자와 녹취 내용을 확인 후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하였다. 면접 장소와 일시는 연구 참여자가 결정하였으며 주로 참여자의 학교나 집 또는 연구자의 학교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3. 질문지 구성

비음악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 면담에 사용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면담내용은 음악치료를 선택하게 된 동기, 진로 선택에 있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험들, 학부전공과의 관련성, 자신과 음악과의 관계, 음악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에 명시된 문항 이외에도, 실제 면담 도중 연구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경험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구성

질문 항목	질문 내용
선택 동기	1. 직업 혹은 진로선택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 당신은 음악치료(학문 혹은 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적 경험	1. 당신이 음악치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외적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시오. 2. 당신이 음악치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내적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시오.
학부 전공과의 관련성	1. 비음악 전공자로서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하면서 생각한 두려움이나 기대감에 대해 설명해주시시오. 2. 당신의 학부전공이 음악치료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타	- 자신과 음악과의 관계 - 음악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한 녹음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결과의 분석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분석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참여자들의 내용 검증을 통해, 일치하지 않는 경험 및 특성을 보고한 참여자의 의견은 반영하여 정정하였다.

면담 내용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자료 분석은 이론적 민감성과 이론적 표본 추출, 지속적 비교 방법에 충실하였다. 즉, 개방 코딩을 통해 자료를 개념화시키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축코딩을 통해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6가지 패러다임 축을 중심으로 각 범주들의 관계를 규명하였

다. 산출된 범주와 개념들의 연결 및 통합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 질문, 방향, 계획, 주제, 해석 등을 메모 및 도식화하여 분석 시 참고하였다. 각 단계는 순환적으로 반복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를 통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범주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비음악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 과정을 분석하고자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개념을 밝히고 그 속성과 차원을 자료 안에서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개념을 하위범주로 묶고 다시 추상화시키는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를 실시하였으며 88개의 개념, 2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범주가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3>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학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함 대학원 진학을 위해 전공을 선택함 기존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음	진로 선택의 현실적 필요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모색함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심하게 됨	삶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고려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
내가 잘하는 것을 살리고자 함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함 나를 다시 찾고 싶은 욕구가 생김 나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탐색	
나의 내면을 더 잘 알고자 함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함 타인을 보살피는 것 자체를 즐김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관계 맺음을 중요시 여김	기본 성향 및 태도	개인적 특성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타인의 충고 및 피드백 부모의 직업 선호도 음악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음악치료 관련 신문 기사를 접함	외부의 자극	환경적 영향
음악활동을 꾸준히 해옴 유년기부터 다양한 악기를 경험함 음악적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음악과의 친밀한 관계	
음악과 나만의 비밀스런 교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게 됨 음악성 발견을 통한 자기 탐색 시작 음악 감상 시 초월적인 느낌을 경험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음 음악을 경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	음악과의 심층적 관계 형성을 통한 의미 부여	음악적 배경
소진된 에너지가 충전 됨 신체적 긴장이 이완됨 정서적 해소감을 느낌 음악안에서 안전감을 얻음 음악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 음악으로 타인과 감정을 공유함	음악의 치유적 힘 경험	
심미적 음악을 온전히 느끼고자 함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자 함 음악에 몰입하는 삶을 열망함 음악을 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음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재경험	
사람들 각자의 가치 발견을 돕고자 함 어려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자 함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자 함	이타심 발현의 매개로서의 음악	음악아 실현을 추구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자 함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의 경험을 가치롭게 공유하고자 함 음악적 재능을 활용하고자 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깊이 있는 관계 맺음 추구	
음악 실기 기술에 대한 부담감 음악 이론의 토대가 부족함 음악 전공자들에게 비교 당할까 걱정함 악기 연주에 자신이 없고 위축됨	음악적 기술에 대한 불안감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알게 됨 장애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체력 소모가 큰 일이라 여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표 3〉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어려움을 느끼는 일에도 도전해 보고자 함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 새로운 변화를 즐김 자기 조절을 잘함	상황 인식에 대한 유연함	자아탄력적 특성
직업은 언제나 변경 가능한 것임 직업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의미 중심의 과정 지향적 직업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
문헌이나 자료를 검색함 특강이나 세미나에 참여함 지인을 통해 조언을 구함 수집된 정보와 자신의 성격 및 적성을 고려해봄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탐색	
학부 전공이 생각의 폭과 안목을 넓혀줌 학부 전공이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줌 학부 전공과 음악, 그리고 나의 내면적 욕구가 통합되는 느낌 새로운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나의 여러 욕구가 종합된다는 확신	학부전공과의 연계성 발견	진로 선택의 어려움에 대처
음악전문 교육기관을 다님 입시를 위한 악기레슨을 받음 음악 이론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함	음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나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함 진로 결정이 확고해짐 나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게 됨 진로를 결정하고 마음이 편안해짐	선택에 대한 확신	내적 수용과정
음악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 음악치료 진로선택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함 소명의식을 가지게 됨	구체적인 포부를 품음	
나를 더욱 이해하게 됨 내 존재의 가치를 고취함 삶의 방향을 정립함 새로운 목표와 희망이 생김 실현하고 싶은 여러 욕구들이 결합되어 해결됨	음악아와의 통합에서 느끼는 만족감	음악아 실현과 자기성장
일상생활에서의 음악 활용도가 높아짐 음악으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함 음악을 자신의 성장으로부터 관계 맺음의 차원으로 확장함 음악을 관계 맺음의 구체적 매개로 사용	적극적 소통 매개로서의 음악	

1)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 인식

본 연구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이란 참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한 취업이나 진학과 관련된 현실적인 자극을 받아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을 말한다. 비음악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 과정은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갈등이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설정하려는 지속적인 동기와 함께 현실적으로 진로선택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에서 유도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위해서 깊은 자기 탐색을 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진로라는 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어려운 주제였고. 뭔가 인생이 죽 흘러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죠. 학부 때 졸업을 앞두고 처음에는 취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좀 방향을 했죠. 입사원서를 내느냐 마느냐, 그런 중요한 시기였어요.’(참여자B)

‘나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한테 주신 은사. 나한테 바라시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더듬어 제 길을 찾아본 것 같아요.’(참여자A)

‘학부전공은 제 생각보다 부모님이 추천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사실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게 나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던 중 사람의 영혼이나 내면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명 한명의 영혼을 중요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참여자D)

2)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침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 선택은 개인 내적인 특성과 음악적 배경,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이란 개인이 갖는 내면적 성향 및 태도로서, 능력 또는 자질, 취향, 가치, 욕구 충족 양식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자신이 가지는 지적·심리적·정서적 욕구 등을 포함한다. 환경적 영향이란 개인이 속한 환경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진로선택의 개념에 적용한 것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요인과 교육기회, 교육내용, 직업의 요구조건, 기대 소득 등과 같은 외부적 영향들을 포함한다. 음악적 배경이란 참여자 스스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음악하기에 대한 애착, 음악 내에서의 치유적 힘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잠재성에의 발견과 확신 등 음악아와의 심층적 관계 형성 시작을 의미한다. 이들 각 영역에서의 조건들은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 선택 경험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학창시절에 보면 좀 그런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좀 우울한 얘기, 철학 공부도 좋아하고 성향이 조금 그렇기는 했어요. 그때는 그게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고 내가 생각 좀 많은가보다 했죠. 그런데 끊임없이 나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알고 싶었고 더 조절하고 싶었어요.’(참여자 B)

‘그때만 해도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우게 너무 많았었고. 모든 소음으로부터의 차단 역할도하고 나 혼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듯한 그런 거. 그런 기분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현실을 떠나서 뭔가 다 잊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항상 음악을 듣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죠.’(참여자 C)

‘어렸을 때 다른 학원은 안다니고 피아노학원만 다녔어요. 피아노를 쳤으니까 전공도 하고 싶었는데요.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그만뒀죠. 그 후 제 꿈을 이루는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끔 피아노를 치면서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상담하면서 문제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참여자 E)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혼자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런 게 항상 피난처 같은 거예요. 원래 내향적이라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많이 피아노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유의 경험을 많이 했죠.’(참여자 A)

3) 음악아 실현을 통한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의 추구

음악아 실현 추구는 참여자 자신의 내면적, 외형적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잠재성과 소질을 현실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계획과 소망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동안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음악아 실현을 통한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의 추구로 나타났다. 잠재되어 있던 음악아를 적극적으로 재경험하고, 음악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음악아의 실현을 통한 자기 가치 실현을 추구 하였다. 이들은 음악아를 매개로 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자 하였고, 음악을 통한 전문가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자 하였다.

‘음악의 심미성. 그니까 좋은 음악에 제가 거기서 매료되었으니까, 뭔가 음악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뭔가 안에서 충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은데. 정말 재밌게 하고 함께 즐기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근거 있는 설득, 학문적으로 탄탄하게 해서 많이 알려지게끔 하고 싶어요.’(참여자 C)

‘내가 음악에 대해 감동을 받았던 것, 느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음악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 싶어요. 제대로 잘 전달해주고 싶고. 음악으로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어요. 존중받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참여자D)

‘제가 음악적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영적인 것. 만족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힘이 돼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나의 달란트를 더 가꾸어 나가고, 개발해서 나중에 전문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A)

4) 진로 선택 시 문제 해결 전략

비음악전공자들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음악으로 자기 가치 실현을 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은 그들에게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갖게 하였다. 진로 선택의 어려움 경험은 개인 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 선택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음악적 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음악치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참여자들의 고민을 포함한다. 그러나 내·외적 긴장상황에 맞서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아 탄력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처는 그들이 음악치료로 진로를 결정하고 확신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음악치료 진로에 대해 가치와 명분을 찾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고 해석하는 내적 수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강을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이... 영상들을 보여 주잖아요. 실례를 보여주는데 그전까지 장애 아동과의 그런 접촉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넉넉지 않은 것도 알게 되고 걱정 많이 했었죠.’(참여자B)

‘음악치료사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돈도 못 벌고 실제로 여기 저기 약기 짚어지고 다녀야 되고,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참여자 C)

‘대학 4학년 때 다시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입시를 준비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음. 근데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다녔어요. 근데 너무 피아노를 안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찾는데 대개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클래식 피아노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특강도 듣고 음. 하면서 음. 그렇게 음악치료에 대해서 알아간 것 같아요.’(참여자 B)

‘제가 전공 한 것이 꼭 밑바탕은 아니지만 저의 마인드와 그러한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들어갈 때 더 넓은 안목과 철학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 했을 때 음악치료는 저는 생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참여자A)

5) 음악아 실현을 통한 자기 성장을 얻음

비음악전공자들이 음악치료를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적 현상은, 음악 안에서 자신의 성장이 촉진되고 확장된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 또한 실현하고 싶었던 여러 욕구들이 결합되어 해결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이 음악아 실현을 통해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진로를 선택한 후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아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성장을 얻게 되었다. 이는 삶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며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 등 자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악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관계 맺음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나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거.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니깐. 뭔가 삼박자가 맞는 것 같은. 그런게 다 모아진다는 확신이 생겼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참여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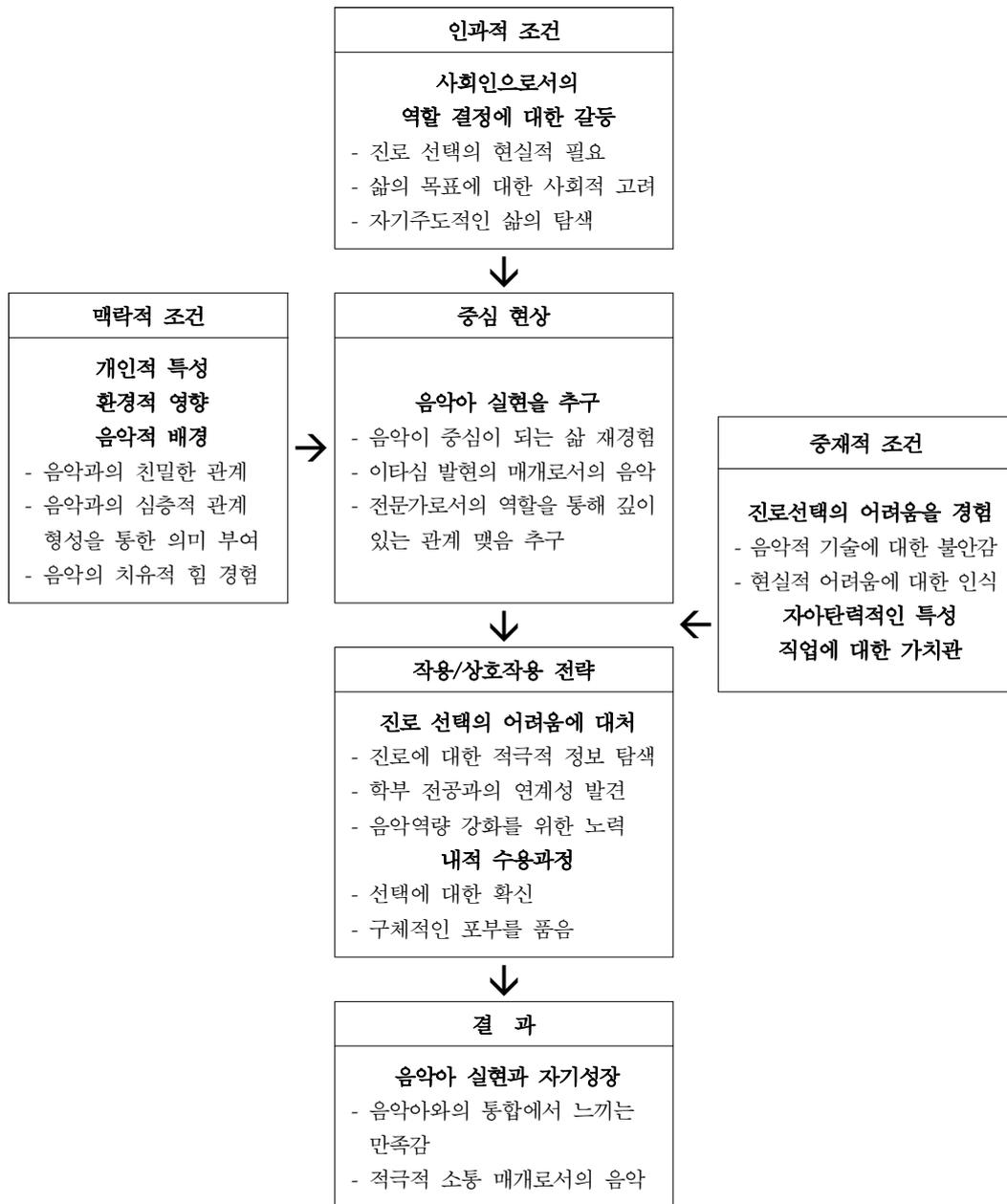
‘음악은 그냥 딱 그대로 음악인데요. 제가 성장하면서 그 음악을 바라보는 눈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로 잘 표현 못하지만 진짜 음악으로 같이 성장해오고 내가 그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음악은 어땠는지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 무슨 척도가 있었음 좋겠어요. 제가 그때는 음악을 한 삼정도 알았다면, 지금은 제가 구 십정도 아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악이 저랑 같이 가는 게... 커지면서 음악 보는 것도 커지고 생각하는 것도 커지는 것 같고.’(참여자 E)

‘그냥 내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더 노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려고 땅에 묻어 두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해진 저를 찾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A)

2.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첫 단계 분석과정인 개방코딩 이후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개념을 하위범주로 묶고 다시 추상화시키는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각 범주를 속성과 차원 수준으로 분석하면서, 밝히고자 하는 현상의 구조와 과정을 보여주는 틀로서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비음악전공자들의 음악치료진로 선택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음악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이 발전 혹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 비음악 전공자들은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진로를 고민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진로선택이 필요해짐에 따라 진로선택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때 음악아 실현을 통한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의 포부를 품게 되고 이 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탐색, 대처, 조율, 수용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이 '음악아 실현을 추구'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밝혀졌다. 인과적 조건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한 갈등'의 속성은 '강도'로 '심함, 약함'의 차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2) 맥락적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심 현상이 발현되는 구체적 상황으로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 '음악아 실현을 추구'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음악적 배경'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깊은 내면을 알고자 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타인을 보살피고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직업 선호, 타인의 충고 및 피드백, 음악치료사의 사회적 인식 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유년기부터 음악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음악 안에서 다양한 치유적 힘을 경험한 것은 음악아와의 심층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맥락적 조건으로서 '개인적 특성'의 속성은 '정도'로 '강함, 약함'의 차원이 있었고, '외부 요인'의 속성은 '영향'으로 차원은 '큼, 작음'이었다. '음악적 배경'의 속성은 '경험'으로 '많음, 적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중심 사건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중심 현상이 '음악아 실현을 추구'로 밝혀졌다. 참여자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결정에 대해 갈등하면서 진로 선택의 필요가, 내면에 있는 음악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의 음악아 실현을 통해 타인과 깊이 있게 관계 맺음으로써 자기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재조명하여 각자 지니고 있는 잠재성과 소질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음악아 실현을 추구'의 속성은 '정도'이고 차원은 '표면적, 심층적'으로 나뉘었다.

4) 중재적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현상이 속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전후관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음악아 실현을 추구’라는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과 ‘자아탄력적 특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음악치료 진로선택에 있어 음악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음악치료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알게 된 경제적 여건, 사회적 인식, 체력적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황을 유연하게 인식하는 개인의 자아 탄력성과 상호적 과정 중심의 직업관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구체화된 진로 선택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의 속성은 ‘정도로 ‘많음, 적음’의 차원으로 나뉘었고, ‘자아탄력적 특성’의 속성과 차원은 ‘정도로 ‘강함, 약함’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속성은 ‘본질’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분석하였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연속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아 실현을 추구’라는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탐색’, ‘학부전공과의 연계성 발견’, ‘음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한 ‘진로선택의 어려움에 대처’와, ‘선택에 대한 확신’, ‘음악치료의 학문적·임상적 가치 인식’으로 인한 ‘내적 수용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속하는 ‘진로선택의 어려움에 대처’의 속성은 ‘태도’이고 차원은 ‘수동적, 능동적’이다. 또한 ‘내적 수용과정’에 대한 속성은 ‘유형’이고 ‘수용적, 표현적’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6) 결과

결과는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사용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도출한 최종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6). 본 연구에서는 ‘음악아 실현을 추구’라는 중심 현상에 대해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탐색’, ‘학부 전공과의 연계성 발견’, ‘음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내적 수용 과정’을 가지는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음악아와의 통합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자기 성장을 이루는 관계맺음’으로 ‘음악아 실현과 자기성장’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발현하고자 했던 여러 욕구들이 음악아 실현을 통해 통합되고 해결되는 만족감을 얻었고, 음악아의 실현은 자기성장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로서 ‘음악아 실현과 자기성장’의 속성은 ‘정도’이고, ‘표면적, 심층적’의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다섯 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하여 근거이론 도출을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88개의 개념, 2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은 ‘음악아(Music Child) 실현과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을 통한 자기성장 과정’이었다. 이는 삶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와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현실적인 자극을 받아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과 음악치료에 대한 탐색이 유발되었고, 개인적 특성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음악적 배경이 상호작용 하였다. 그 경험은 자신의 본능과 잠재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음악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자기(self) 통합과 성장의 추구로 이어졌다. 또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포부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음악아 실현을 중심으로 한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가한 5명의 비음악 전공자들은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또한 취업이나 진학과 관련된 현실적인 자극을 받아 진로 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악치료 진로선택 과정 경험은 자신의 상황과 음악치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최종적인 선택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비음악 전공자들은 개인적 특성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자기실현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재해 있던 ‘음악아’를 발현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본성과 잠재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음악아’와의 관계를 재설정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자기(self) 실현을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다시 말해 음악을 통해 자기를 재조명하고, ‘음악아’와 자기의 균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음악 안에서의 통합과 성장을 꾀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적·외적 성취를 추구하고 특히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명감과 이타심의 발현이 진로선택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음악아’의 실현이 이들의 포부를 구체화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아 실현과 깊이 있는 관계 맺음 추구는 실제 진로 결정 과정과 유사하게 유기적으로 수행되었다. 탐색 단계에서 문헌이나 자료를 검색하여 음악치료 관련 정보를 얻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이미 수집한 정보들과 자신의 성격 및 적성을 함께 고려해보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 구체화된 진로선택 과정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식에 있어서도 음악 전문 교육기관을 다니며 이론과 실기의 기본 토대를 다지고,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였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선택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학부 전공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음악과 자신의 내면적 욕구, 학부 전공, 자신이 통제하지 않은 외부적 조건, 상황 변화 등이 새로운 맥락에서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들로 역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전공을 변경하여 음악치료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규명함으로써 ‘음악아’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선택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내적 수용과정은 이러한 인식을 돕는 필수적인 자기 조절 과정이었다. 따라서 내적 수용 과정에서는 선택한 음악치료의 학문적·임상적 가치를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음악치료 관련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결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래의 음악치료사로서의 삶을 그려보거나 음악치료의 긍정적 측면을 생각해 보는 등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감과 편안함 속에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음악치료 진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비음악 전공자들은 마지막 단계인 실행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음악적 역량 배양을 토대로 한 음악아 실현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확고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만족감을 성취하였다. 또한 자신의 성장으로부터 타인과의 관계 맺음 차원으로 확장되어 음악이 깊이 있는 관계의 구체적인 매개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음악아 실현을 통한 자기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음악아 실현과 깊이 있는 관계 맺음을 통한 자기 성장 과정’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이는 풍부한 음악적 배경, 개인의 내적, 외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음악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진로선택 과업 수행 과정이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를 선택하는 동기나 핵심 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진로 선택 과정을 실제 경험에 근거한 현상으로 이해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실체이론 제시를 위한 예비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례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큰 표본을 통한 이론 추출을 수행하여 이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와 실체 이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음악치료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여 선택 후의 적응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음악 전공자들이 음악치료 진로 선택 후 겪게 되는 여러 적응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의 진로선택 과정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행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과 비음악 전공자들의 음악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치료학과 대학원생에 국한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음악치료 진로선택과정을 입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민 (2008). 음악치료사의 음악적 개성화. *음악치료교육연구*, 5(2), 93-102.
- 남궁지숙 (2005). 학부 음악전공 여부에 따른 음악치료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반응조사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2), 35-53.
- 박민경 (2010).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조사 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7(2), 47-63.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장선철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분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33-551.
- 조경림 (2010). 음악치료사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가는 치료사들의 동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 (2007).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lley, J. M. (1978). Competency based evaluation of music therapy curriculum, *Journal of Music Therapy*, 15(1), 9-14.
- Brucia, K. E. (1998). *Defining music therapy(2nd e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3), 212-231.
- Chong, H. J. (2007). Intrapersonal competency in music therapy: Challenges for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Education*, 4(2), 106-114.
- Chong, H. J., & Kim, S. J. (2010). Education-oriented music therapy as an after-school program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Arts in Psychotherapy*, 37(3), 190-196.
- Davis, W. B., Gfeller, K. E., & Thaut, M. H. (2002).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2nd ed.)*. NY: McGraw-Hill. **음악치료학 개론** (김수지 외 공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저 1998 출판)
- Gati, I., & Asher, I. (2001). The PIC model for career decision making: Prescreening, in-depth exploration, and choice. In F. T. Leong & A. Barak(Eds.),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 (pp. 7-54). NJ: Erlbaum.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 Guidance Quarterly*, 20(3), 2-9.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Nordoff, P., & Robbins, C. (2007). *Creative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
- Robarts, J. Z. (1993). Sound and symbol: Music therapy with an abused child with autism. *Paper presented at 7th World Congress of Music Therapy, Spain*.
- Robbins, C., & Robbins, C. (1991). Self-communications in creative music therapy. In K. E. Brucia (Ed.), *Case studies in music therapy*. Gilsum, New Hampshire: Barcelona Publishers.
- Robbins, C. (2005). *A journey into creative music therapy*. NH: Barcelona Publisher.
- Schreiber, R. M., & Stern, P. N.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김미영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저 2001 출판)
- Strauss, A., & Corbin, J. (2005).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외 공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원저 1996 출판)
- Super, D. E. (1975). *Career education and meanings of work*. Washington D.C.: U.S. Office of Education.
- Tiedmam,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게재신청일: 2013. 04. 10.
- 수정투고일: 2013. 05. 16.
- 게재확정일: 2013. 05. 21.